

# 韓國의 家庭生活과 環境教育

鄭 光 謨

(韓國 消費者聯盟 會長)

##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가정 생활에서 실시할 환경 교육 |
| 2. 소비 생활 및 가정 생활과 환경 교육 | 4. 告發센터에 비친 生活公害     |
|                         | 5. 맺는말               |

## 1. 머리말

지구가 병들고 있음을 누구나가 느끼면서도,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크게는 지구의 溫煖化, 오존층의 파괴, 熱帶雨林의 파괴, 작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자원과 수질 오염, 자원 문제, 에너지, 식량·식품, 폐기물 처리, 교통 문제 등 전 세계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려는 환경 문제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때마침 오는 4월 22일에는 「90년 지구의 날」 행사가 세계적으로 계획되고 있어 환경 보전에의 갖가지 제안과 방법이 제기될 것이다.

이 같은 지구적 규모의 문제속에서 소비자로서 가정에서의 환경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하기 위한 환경 교육은 어떻게 퍼나갈 것인가.

우리의 환경 보전은 가정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메아리쳐야 하며 특히 가정에서의 역할은 빗물이 고여 강물을 이루는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더욱이 生産者 優位 時代에서 消費者 優位 時代로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불필요한 물건의 개발과 제조를 위해 자원 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소비자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무분별한 물건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할 때이다.

가정에서부터 특히 힘써야 할 환경 교육을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 폐기물을 줄이고 재생시키는 교육
- 수자원의 보호 교육
- 유독물질, 오염물질에 대한 교육
- 에너지 교육
- 식량·식품 교육
- 교통 교육
- 생명과 환경 보호 교육

## 2. 消費生活 및 家庭生活과 環境教育

消費者 團體는 1988년 8월 환경 보전을 위한 '消費者 行動 決議文'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소비자 자신이 지켜야 될 행동지침을 비롯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지켜야 될 생활원칙도 마련한 것이다.

세 가지 원칙에서 소비자는

- ① 자연 자원과 생활 용품의 소비를 최대한도로 줄이고
- ②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을 개선하며
- ③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을 감시하고 고발하기로 했다.

그보다도 환경 문제중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水質汚染을 앞장서서 막기로 뜻을 모았다. 소비자가 물의 사용량을 줄여야 하수량도 적게 들고, 음식 찌꺼기는 하수도로 흘려보내지 않고, 쓰레기로 내버리고, 쓰다 남은 식용유 등은 가능한한 하수도로 흘리지 않고, 종이에 묻히고 휴지로 싸서 쓰레기로 버린다. 또한 세제는 경성세제가 아닌 연성세제로 인산염이 없는 것을 사용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적당량을 쓰기로 했다. 물을 물쓰듯이 흔하게 쓸 것이 아니라 한번 쓴 물을 정원수에 뿌리거나 재사용을 함으로써 하수량을 줄여야 한다.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 이상 해서 정화조가 넘쳐 흐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한다.

사실 이 같은 실천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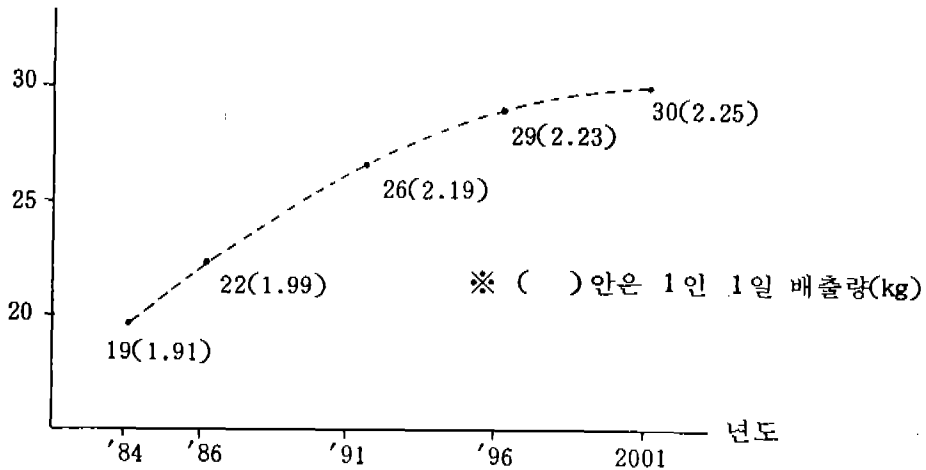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물을 아끼는 습성이 없어진 소비자들은 물도 지구의 자원으로서 음료수의 한계가 왔다는 전실한 현실을 깨닫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물 뿐만 아니라 生活 廢棄物 역시 효과적인 처리를 하도록 철저하게 가족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쓰레기를 버리는 데 있어, 타는 것과 안 타는 것의 분리, 젖은 것과 마른 것의 분리는 재생에 효과적이고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

아직도 土壤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소비자는 水銀電池의 유해를 모르는 채 마구 버리고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보관하여 특수처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특수 처리장이 완공이 되지 않아 소비자 단체는 회수된 수은 전지들 그대로 쌓아 두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나라의 쓰레기 배출량의 전망에 비해 처리 시설 설치 계획은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발생량(백만톤/년)



(그림 1) 도시폐기물 배출량 전망

<표 1> 소각시설 설치 계획

기 간	기 수	규 모	설 치 지 역
'88~'91년	11	4,300톤/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성남
'91~'96년	10	1,700톤/일	서울, 대전, 수원, 안양, 부천, 청주, 전주, 마산,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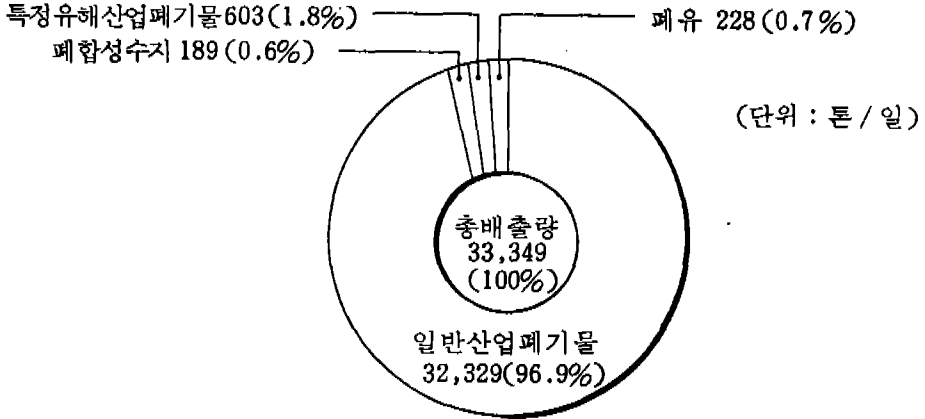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쉽게 교육할 수 있는 것은 등산이나 유원지 놀이에서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자기 것을 되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쌓여진 비닐조각들은 썩지도 않은 채 산을 오염시킨다. 家庭主婦들이 쉽게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의 분리 수거와 수거 일시를 제대로 지키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산업 폐기물 발생과 종류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폐합성수지의 발생 및 수집추세

(단위 : 천톤)

구분	연도별	'81	'82	'83	'84	'85	'86	'87	'88
폐수지 발생량		197	234	276	320	367	404	438	471
수집량	민간	103	133	162	194	228	258	284	308
	공사	20	20	25	30	35	37	40	45
	계	123	153	187	224	263	295	324	353
수집비율(%)		62	65	68	70	72	73	74	75



〔그림 2〕 산업폐기물 종류별 구성비('86년)

소비자 단체가 해야될 일 중에 또한 중요한 것은 大氣汚染의 主犯을 監視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정비 점검이 제대로 안되어 매연을 뿜어대고 난폭한 운전으로 타이어의 마모로 인한 분진, 연탄재를 마구 버려 날리게 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태워서 독성가스를 뿜어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감시하

고 고발하도록 뜻을 모았다.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결의를 하면서 정부는 오염배출을 하는 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엄격히 설정해 준 것과 기업이 처리시설을 해놓고도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는 것을 감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쓰레기 공해를 막는 위생적인 매립지도 마련하고 공해없이 소각할 수 있는 무공해 소각장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뽕니뽕니해도 공해 배출은 企業이 주범이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는 기업이 공해 방지 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하고 모든 물건을 만드는 데 공해가 적도록, 공해가 없도록 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정상적인 배출 시설을 운영하도록 술선수범한 것을 요구했다. 기업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깡통이나 껍이나 포장지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노력한 것이며, 휴잉검과 같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회사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책임져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

환경 보전 문제는 국경이나 사상을 초월한 긴급한 인로 되어졌다. 남극의 어느 오존층이 파괴되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인류사상 최초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소비자 참여의 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체 전략을 펴야될 때가 왔다.

환경 문제는 생활 속에서 발생되고 예방해야되며 처리해야 될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는 생활에 쫓겨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에만 위협당하고 있다가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발전은 환경 문제를 절실하게 생각하도록 했다. 여태까지는 돌발적인 급성 전염병의 유행이나 식중독, 쥐, 파리, 모기 등 문제가 고작이었고 수도물의 단수, 전기의 단전 등이 환경 문제의 관심사였을 뿐이었다. 차츰 분뇨, 쓰레기 문제가 이어지고 세제, 농약오염의 관심보다 반 공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환경청이 환경처로 격상이 되고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공직자의 환경 인식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느냐, 인간 존중어의 행정 관심이 얼마만큼 전환되느냐, 소비자의 자질이 얼마나 향상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연 파괴는 최소한도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생활과 환경을 생각해본다. 우리는 환경은 환경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따로 생각된다. 그러나 主體가 個體를 둘러싼 모든 것은 환경으로 봐야된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과 환경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환경의 한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서로 상대에 있어서는 환경의 일부이다. 그런 점에서 환경 문제라는

것은 그것이 개인이나 집단의 체제에 의해 자기 인지의 방식과 판단 조건에 의해 문제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또한 우리는 생활을 환경의 전체로서 보아야 한다. 생활과 환경이라는 것은 생활을 주체로서 그 주체를 둘러싼 환경 문제를 대치시키면서 볼 수가 있으나 생활 그 자체가 서로의 환경 문제로서의 입장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왜 굳이 가정 생활과 환경 교육을 소비 생활 측면에서 보려고 하느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구상의 생물의 일원으로서 受胎, 出産에서 죽을 때까지 일생의 생명유지와 안정, 향상을 위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욕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환경이라는 것은 지리적 조건과 사회 경제의 발달 단계속에서 각기 다른 나라의 정치·행정 체제속에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인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 사회 속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생각할 때 소비 생활 측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것과, 환경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

우리는 소비자 문제가 그러하듯이 우리는 年齡別로 생활관, 윤리관, 도덕관이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1·2차 대전을 치룬 연령, 6·25를 겪은 연령, 4·19를 겪은 연령, 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연령에게는 공통의 관심사는 없다. 실사 關心事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관점과 그 문제를 추구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상호간의 연계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運動이라던가 행정이나 정치는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통일이 된다. 시각의 통일은 전쟁과 같은 격변이나 이데올로기의 생성이나 창조적인 教育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나라가 경제 급성장을 이루게 된 것도, 이만큼 민주화를 이루게 된 것도 교육이 힘이다. 그 교육은 때로는 독립운동, 때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경제강국이 되겠다는 놀라운 노력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는 「消費者 文盲」을 교육만 시킨다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정부가 금년부터 「생활경제」라는 교과서를 만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소비자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교과서는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고 소비자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경제의 무게를 더 크게 다루었지만 점차 구체적인 실천 방안등을 삽입하고 재편성하고, 필수과목으로 바뀔 때에는 그 태반이 환경 문제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과서 개편은 앞으로 차츰 기대되는 일이고 환경 문제는 당장 눈앞의 일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이 실천하여야 한다.

### 3. 家庭生活에서 실시할 環境教育

앞서 소비자 단체가 결의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소비생활 측면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 이 교육은 소비자 단체는 물론이지만 매스미디어가 앞장 서주고, 지역사회 지도자가 앞장 서고 국민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앞장을 선다면 삼시간에 그 영향이 실제 소비생활에 침투될 것은 자명하다.

#### (1) 폐기물은 줄이고 재생하는 교육

- 가능한한 모든 부분의 낭비를 억제한다.
- 1회용 컵이나 종이수건, 냅킨 등을 쓰지 않는다.
- 쇼핑할 때는 천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
- 재생할 수 있는 상품이나 재이용에 가능한 상품을 골라서 산다. 쓰고 쉽게 버리는 제품은 사지 않는다.
- 물건을 가능한 버리지 말고 수리해서 쓴다.
- 어린이 기저귀 같은 것은 땅속에서 분해되는 것을 골라서 쓴다.
- 모양보다는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산다.
- 비닐제품, 비닐 백 등은 피하고 종이 백을 쓰도록 한다.
- 불필요한 포장은 산 그 자리에서 풀고 점원에게 돌려준다.

〈표 3〉                      각국의 도시폐기물 처리현황

(%)

국 명	연 도	매 립	소 각	재활용 및 기타
덴 마 크	1979	32	66	2
영 국	1978	89	10	1
프 랑 스	1975	60	29	10
일 본	1975	52	46	2
네덜란드	1975	64	30	6
스 웨 덴	1975	65	33	2
스 위 스	1978	15	70	14
미 국	1979	95	5	-
서 독	1979	71	25	3
한 국	1986	92.5	3.8	3.7

이런 일이 계속되면 기업은 스스로 물자낭비를 피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도시 폐기물 처리량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함을 알 수 있다(표 3참조).

## (2) 수자원의 보호 교육

- 수도꼭지는 조금씩 튼다.
- 세탁기나 식기 세척기는 너무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 세탁물은 적당히 모아서 땀다.
- 세제중 인산염이 든 것을 피하고 세균에 의한 분해가 가능한 고체 비누 세제를 쓴다.
- 자기가 마시고 있는 물이 어디에서 오는가, 물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검사나 정화용으로 무엇이 쓰여지고 있는가 등을 조사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법률을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 기업에 대해서는 수질 오염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다.

## (3) 유독물질, 오염물질에 대한 교육

- 후레온 가스를 사용한 스프레이 등은 쓰지않는다.
- 모든 살충제는 벌레가 죽는 이상의 독성이 없는 것을 쓴다.
- 합성섬유는 유독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 유독·화학물질의 사용이나 유독 폐기물의 배출을 줄이도록 지역 주민들은 물론 기업에 단단히 요청한다.
- 처방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히 체크를 해야 한다.

## (4) 교통에 대한 교육

- 가능한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다. 자가용이나 영업용 차에는 불필요한 장치는 떼어버린다.
- 속도는 조절하고 지나친 스피드를 안낸다.
- 운전할 때는 최단거리의 도로를 선택하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 (5) 食糧·식품 敎育

- 食糧 생산이 環境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가를 생각해보는다. 加工 生産된 食糧은 그 處理 方法을 研究한다.
- 食糧 구입은 가능한한 생산지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판매 점에 요구한다.
- 구입은 가까운 가게를 선택한다.
- 照射食品에 대해서 건강상, 環境상의 견지에서 의문을 던지고 소비자 단체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 농약이 기업 비지니스化한 것에 주목하고, 갖가지 方法으로 무공해 식품을 만들고 쓰도록 노력한다.

### (6) 생명과 環境 保護 敎育

- 멸종의 위기에 있는 동식물은 사지 않는다. 또 그러한 물건으로 만든 제품은 사지 않는다. 예를들어 가죽제품, 털제품 희귀동물에서 나오는 식품이나 제품 등
- 環境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行動을 가정, 지역, 직장에서 일으킨다.
-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關係해서 運動을 하고 있는 조직이나 매스미디어에 협력한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 한사람 한사람의 민족적 특성과 文化를 존중하도록 설득한다.
- 향락주의로 사는 것 보다는 생활의 의의를 깊게 느끼게 하고 진정한 豊요로움을 추구하도록 影響을 끼친다.
- 지역사회에서 물질적인 豊요로움 보다 정신적인 豊요로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研究한다.
- 아름다운 것, 눈을 끄는 것, 이용가치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 이와같이 생활 環境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제언이나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 항상 사회 변화에 따라 생각과 실천이 변하는 것을 알기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 새로운 方案을 창출한다.

#### 4. 告發센터에 비친 生活 公害

고발센터에는 물이 더럽다, 매연이 심하다,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냄새가 난다, 부근의 건축 때문에 지반이 가라앉고 벽에 금이간다, 자동차 통행으로 진동이 너무 심하다, 이런 고발이 들어온다.

그중에서도 소음이 가장 많고, 수도물이 두번째, 악취·매연등의 순위로 내려간다.

騒音에는 끊임없이 들어대는 상점들의 음악소리, 유흥 음식점의 음악소리, 옆집의 피아노 소리, 개짖는 소리, 공장 소음 등이 있고, 공장지대에서는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대기 오염 등이 있다.

도시의 과밀도나 생활양식의 다양화가 됨에 따라 소음은 계속 늘어가고 공장의 폐수는 계속 증가되지만 소음 규제법 또는 사전·사후의 규제만 가지고는 별로 지도의 효과를 못보고 있다.

소음증에는 교통 소음의 문제도 있지만 현대의 자동차는 대단한 편리성을 가져왔고 산업경제 사회에서 자동차 경제의 이점은 크다. 반면에 소음, 배기가스에 의한 영향 등 불리한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자세한 수치는 각기 전문적인 학자들의 발표에서 지적된 것으로 믿고 있지만 몇가지 소비자 고발에 의한 생활 소음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사람...회화, 어린이들의 놀이, 집회, 행사
- (2) 사람과 건물...발자욱 소리, 창문·대문 여닫는 소리, 급·배수시설의 사용 (목욕탕, 화장실, 부엌)
- (3) 사람과 물건...개인적인 취미, 취향, TV, 라디오, 피아노, 오디오, 개, 고양이, 새, 풍경, 자동차, 세탁기, 청소기, 보일러, 냉방기 등

이중에서 제일 시끄러운 것은 개짖는 소리(90-100데시벨), 그 다음이 피아노 소리, 오디오, 청소기, 어린이 발자욱 소리, 목욕탕의 물빠는 소리 등의 순서로 나와있다.

두번째로, 수도물에서 지렁이가 나온다, 시궁창 냄새가 난다, 흙탕물이 나온다, 잦은 오물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고발이다. 아무리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도, 파이프의 노후는 갖가지 異物質을 빨아들인다고 해명을 해도 막무가내다. 현재 서울 시내는 누수율이 40%나 된다던가? 노후관을 제대로 교체하려면 앞으로 십 수년이 더 걸린다고 한다. 잦은 단수는 노후관으로 하여금 단수되는 순간 逆

流현상을 일으켜 갖가지 물건을 빨아들이고 다시 송수가 시작되면 그것까지 합해져서 수도꼭지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별로 효과도 없는 정수기가 끊임 없이 인기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것도 과소비풍의 소비현상이지만, 눈에 보이는 흙탕물, 지렁이 등을 보면 정수기를 사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것도 고발센터의 한계를 느끼는 점이다.

악취, 매연 역시 마찬가지다. 하수도가 막혀서 도로위로 넘치는 악취는 어쩔 수가 없다. 심지어는 옆집 정화조가 금이가서 냄새 나는 것들이 자기집 하수도를 흘러가기 때문에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해오는 소비자들이 있다.

## 5. 맺는말

생활과 환경 문제는 사회, 경제 발전의 흐름속에서 차츰 변화해왔다. 지나친 생활 방해, 산업 공해나 무신경한 자연과 역사적 문화재의 파괴는 상당히 개선되어가고 있지만, 과소비의 풍조, 무분별한 낭비에서 생활, 교통, 도시 활동에 기인하는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규제나 방지 기술과 투자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 일상 생활의 행동이나 습관도 깊은 관계가 있다. 한편 문제는 차츰 넓혀지고 복잡해지고 국제적, 지구적 규모의 문제까지 현실화 되고 있다. 인구·자원·개발·환경의 4者의 복잡한 마찰을 갖는 문제에 세계적인 확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모든 레벨에 있어서 수많은 이해, 정책에 얽히는 차원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

환경 문제는 百年大計의 과제이다.